

01

2022

제203호

우즈베키스탄 경제 브리프

1. 대내외 정세 1

- o 우즈베키스탄 코로나19 동향
- o 우즈베키스탄-러시아, 협력방안 논의
- o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마할라' 발전을 위한 과제 논의
- o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전화 통화
- o JICA,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보존 위해 49만불 지원
- o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중국-중앙아시아' 화상정상회의 참석
- o 한-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 교환

2. 경제·산업 동향 3

- o Fitch, 우즈베키스탄 부채 위험성 언급
- o 세계은행, 2022년도 우즈베키스탄 5.6% 성장 전망
- o 2021년말 기준 우즈베키스탄 외환보유고 351.9억불 기록
- o 우즈벡경제연구개혁센터(CERR), 2022년초 기업경기 회복세 기대
- o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국유자산 민영화 추진현황 점검
- o 우즈벡경제연구개혁센터(CERR), 2022년 1분기 4.5~5.3% 경제성장 전망
- o 2022~2026 New Uzbekistan 발전전략 발표

3. 에너지·인프라 동향 6

- o 국가전력망공사(NEG), 아프간 국영전력공사와 전력 공급계약 체결
- o 터키 Aksa Enerji, 부하라 및 타슈켄트 가스화력발전소 가동 착수
- o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수출 중단
- o 에너지부, 3.6G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추진
- o 우즈베키스탄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주 소 Afrosiab st. 7, Tashkent, 100029, Uzbekistan
전 화 +998-71-252-3151~3
이 메 일 uzkoremb@mofa.go.kr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uz-kor/index.do>

※ 본고의 내용은 우즈베키스탄 내 관련기관, 언론 등 발표자료에 근거하였으며,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내외 정세

□ 우즈베키스탄 코로나19 동향

- 2.3(목) 12:00 기준 우즈베키스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누적 226,036명(완치 210,926명, 사망 1,575명)이며, 지난 2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175.6명
 - ※ 백신접종 현황(위생질병보건청) : 2.2(수) 기준 △1차 접종자 19,368천명(54.9%), △2차 접종자 14,704천명(41.7%), △3차 접종자 8,206천명(23.3%)
- 1.17. 보건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타슈켄트 시민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며, 이를 위해 각 구역별 총 12개 검사소가 24시간 운영될 것이라고 발표
 - ※ 1.19. 위생질병보건청에 따르면 PCR 검사 건수가 작년말 일일 1.5~2만건에서 최근 4.5~5만건으로 급증
- 1.20. 위생질병보건청은 국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5~11세 아동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하에 화이자(Pfizer) 백신 접종을 허가한다고 발표

□ 우즈베키스탄-러시아, 협력방안 논의

- 1.13.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2021년도 양국간 교역량 33% 증가 등 양국 협력관계의 현황과 전망을 논의하였으며, 금년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진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카자흐스탄 사태 및 전반적인 중앙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
- 1.19.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타슈켄트를 방문한 드미트리 코작 러시아 대통령실 부실장과 면담을 갖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과 잠재력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역량 증가, 산업협력 강화 등에 대한 기대를 표명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마할라' 발전을 위한 과제 논의

- 1.15.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마할라 발전 및 취업 보장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하며 빈곤 퇴치를 위한 실질적 조건과 마할라 내 사업,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사업 장려, △일자리 창출, △빈곤 감소, △마할라 내 소득 증가를 주요 과제로 설정

- 또한 마할라 내 △인프라 개선, △식수도 보수 및 추가 설치 공사, △유치원, 학교, 의료 시설 설립, △삶의 질과 수준 향상을 강조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2년을 '인간의 이익 및 마할라 발전 보장의 해'로 지정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전화 통화

- 1.20.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양국간 교역량 증가, △산업협력 강화, △문화 교류 활성화, △무역, 물류, 자동차 생산, 에너지, 농업, 화학, 제약, 섬유, 식품 등 주요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양국간 실질적 협력관계 발전성과를 언급하고, 중앙아 지역의 안보보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

□ JICA,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보존 위해 49만불 지원

- 1.24. JICA(일본국제협력기구)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요시마사 타케무라 제1부소장은 우즈베키스탄 관광체육부 산하 문화재청 누롤로예프 청장을 면담하고,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문서고를 통한 실크로드 문화유산 보존' 프로젝트를 위해 일본 정부는 49만불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양측은 양국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프로젝트 협약 서명식을 진행하기로 합의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중국-중앙아시아' 화상정상회의 참석

- 1.25.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중국' 수교 30주년 기념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연설을 통해 무역, 투자, 경제, 운송, 디지털화, 보건, 사회, 에너지, 문화 등 분야의 협력 확대 및 강화를 강조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실크로드 경제회랑 구축, △포스트 팬데믹 및 4차 산업 가속화를 고려한 디지털 기술 확대 적용, △'인공 실크로드' 플랫폼 구축, △공중 보건 시스템 발전 및 전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 △국민복지 보장을 위한 빈곤 감축, △식량안보 보장, △'그린 실크로드' 로드맵 마련, △친환경 전력생산 추진, △2023년 '중앙아시아-중국 문화예술의 해' 지정 등을 제안

□ 한-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 교환

- 1.29. 정의용 외교장관과 카밀로프 외교장관은 한-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축하 서한을 교환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측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강조

2. 경제·산업 동향

□ 주요 경제지표

■ 생산·소비 (전년동기비)

- 산업생산 : (2020) 367.1조숨 → (2021) 451.6조숨(8.7%)
- 소매판매 : (2020) 194.8조숨 → (2021) 249.5조숨(12%)
- 물가(CPI): (2020) 11.1% → (2021) 9.98%

■ 대외교역 (전년동기비)

- 총 교역액: (2020) 363억불 → (2021) 421억불(16%)
※ '21.1~12월(억불): 교역 421(16%), 수출 166(10%), 수입 255(20.4%), 수지 △89
- 對한 교역: (2020) 21.4억불 → (2021) 18.9억불(△12.1%)
※ '21.1~12월(백만불): [우통계] 교역 1,889.5(△12.1%), 수출 51.8(△1%), 수입 1,837.7(△12.5%), 수지 △1,786
[韓통계] 교역 1,907(10.4%), 수출 22(21.4%), 수입 1,879(10.3%), 수지 △1,857

■ 금융·외환 (기말기준/전년말비)

- 기준금리 : (2021) 14.0% → ('22.1월) 14.0%('20.9월 이후)
- 숨/달러 환율: (2021) 10,837.6 → ('22.1월) 10,815.2(절상률 0.2%)
- 외환보유고 : (2021) 347.5억불 → ('22.1월) 351.4억불(금보유량 209.5억불)
- 대외채무 : (2021.10월) 376억불(국가채무 229억불)

□ Fitch, 우즈베키스탄 부채 위험성 언급

- 1.10. 국제신용평가사 Fitch Ratings 보고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2017.9월 외환자유화 이후 경제·사회 분야에서 중대한 변화가 진행되면서 경제개혁을 촉진시켰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위험성도 증가했다고 평가
- 특히, 전력생산 등 핵심적인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는 여타 분야의 발전을 활성화하지만, 대외차관 중심의 고성장은 자산건전성의 악화와 시중은행의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등 여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

□ 세계은행, 2022년도 우즈베키스탄 5.6% 성장 전망

- 1.12. 세계은행(WB)이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6.2%로 평가하면서 2022년 5.6%, 2023년 5.8%로 전망

□ 2021년말 기준 우즈베키스탄 외환보유고 351.9억불 기록

- 1.19. 우즈베크중앙은행(CBU)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외환보유고는 전년대비 0.7% 증가한 351.9억불을 기록하였으며, 금 보유량은 3.6% 증가한 209.5억불로 전체 외환보유고의 59.5% 차지

□ 우즈베크경제연구개혁센터(CERR), 2022년초 기업경기 회복세 기대

- 1.20. 우즈베크경제연구개혁센터(CERR)가 1,000개 이상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12월 기업경기지수(0~100)가 전월대비 7포인트 상승한 62포인트 기록하였으며, 응답기업의 82%는 2022년초 기업경기 회복세 기대
※ 2021년 기업경기지수 추이: (1월)69 → (2월)60 → (3월)65 → (4월)59 → (5월)53 → (6월)58 → (7월)55 → (8월)63 → (9월)56 → (10월)61 → (11월)55 → (12월)62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국유자산 민영화 추진현황 점검

- 1.20.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국유자산의 민영화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민영화 가속화 및 효율성 향상, △국영자산에 대한 실태조사, △공장 등 대규모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 등을 강조하였으며, 3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은 건물의 활용 방안(임대/매매) 마련과 국유자산의 투명한 등록과 온라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지시

□ 우즈베크경제연구개혁센터(CERR), 2022년 1분기 4.5~5.3% 경제성장 전망

- 1.27. 우즈베크경제연구개혁센터(CERR)는 2021년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경제 침체에도 7.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인플레이션 10% 유지, 투자 5.2% 증가, 산업생산 8.7% 증가, 대외교역 16% 증가 등 회복을 넘어서 기록적 성장세를 보였다고 평가
-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2022년 1분기 경제성장률을 4.5~5.3%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대외교역 확대, 해외로부터 송금액 증가, 투자 회복세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한 반면, △오미크론 변이 확산, 경제흐름 변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제시

□ ‘2022-2026 New Uzbekistan 발전전략’ 발표

- 1.28.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2~2026 New Uzbekistan 발전전략’을 최종 승인·확정했으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독점 폐지, △부가가치세 인하, △국영자산 민영화, △에너지 효율성 향상,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 동 발전전략을 통해 △향후 5년 이내 1인당 GDP 1.6배 증가,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천불 진입, △2023~2026 평균 경제성장률 6.5% 달성, △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9%, 2023년 5% 수준까지 인하, △2023년부터 재정 적자 수준은 GDP의 3% 이하 유지, △대외채무 450억불 이하 및 국가채무 GDP 60% 이하 유지 등 목표

3. 에너지·인프라 동향

□ 주요 에너지통계

■ 에너지 생산 (전년동기비)

- 전력(십억kWh) : (2020) 66.1 → (2021) 70.1(6%)
- 가스(bcm) : (2020) 49.7 → (2021) 53.8(8.1%)
- 석유(천톤) : (2020) 2,160 → (2021) 2,098(△2.8%) (※가스콘덴세이트 포함)
- 석탄(천톤) : (2020) 4,131 → (2021) 5,054(22.3%)

■ 에너지 가격 (기말기준/전년말비)

- 전기(UZS/kWh) : (2021) 450 → ('22.1월) 450(0%) (※산업용)
(2021) 295 → ('22.1월) 295(0%) (※가정용)
- 가스(UZS/m³) : (2021) 1,000 → ('22.1월) 1,000(0%) (※산업용)
(2021) 380 → ('22.1월) 380(0%) (※가정용)
- 가솔린(UZS/ℓ) : (2021) 10,200 → ('22.1월) 10,000(△1.9%) (※Ai-95 기준)
- 디젤(UZS/ℓ) : (2021) 9,500 → ('22.1월) 9,500(0%)

□ 국가전력망공사(NEG), 아프간 국영전력공사와 전력 공급계약 체결

- 1.4. 2022.1월 우즈베크 국가전력망공사(NEG)는 아프간 국영전력공사(DABS)와 1억불 규모 20억kWh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
- 한편, 아프간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등에서 전력을 공급 받고 있으며, 2021.10월 기준 51백만불 이상의 전력 구매대금을 연체한 상황

□ 터키 Aksa Enerji, 부하라 및 타슈켄트 가스화력발전소 가동 착수

- 터키 Aksa Enerji는 1.11 부하라州 270MW 가스화력발전소, 1.14 타슈켄트州 240MW 가스화력발전소 가동에 착수하였으며, 동 2개 발전소 건설에는 각 1.5억불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부하라 발전소는 연간 22억kWh, 타슈켄트 발전소는 연간 20억kWh 전력을 생산할 계획

□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수출 중단

- 1.6.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동절기를 맞아 급증하는 국내 가스 소비량을 충당하기 위해 천연가스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
- 에너지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에 2018년 38억㎥, 2019년 49억㎥의 천연가스를 공급했으나, 2020년 이후 수출을 중단했으며, 중국에는 2020년 32.77억㎥, 2021.1-10월간 40.2억㎥를 수출
-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부터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시작했으며, 2020년 9억㎥, 2021.1-3월 15억㎥를 수입
- BP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9년 573억㎥에서 2020년 471억㎥로 감소

□ 에너지부, 3.6G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추진

- 1.12 에너지부는 2022년에 총 3.6GW 규모의 10개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
- △부하라州, 나망간州, 호레즘州, 카슈카다리야州, 페르가나州 등에 총 1.9GMW 규모의 8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카라칼팍스탄에 총 1.7GMW 규모의 2개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할 예정

□ 우즈베키스탄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

- 1.25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 지역에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는 금번 정전사고가 중앙아 지역 통합전력망에 연결된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전력시스템에서 발행한 문제가 원인라고 주장

<참고: 우즈베키스탄 경제 개황>

- 국토면적 : 44.9만km² (한반도의 약 2배)
- 인 구 : 3,527만명 (2022.1월 기준)
 - ※ 중앙아 5개국 76.5백만명 (카자흐 19.1백만, 타지크 9.5백만, 키르기스 6.6백만, 투르크멘 6.1백만)
- 경제성장(IMF)
 - 명목GDP : (2020) 599.3억불 → (2021) 678억불
 - 1인당 GDP : (2020) 1,767불 → (2021.1~9월) 1,413불
 - 실질성장률: (2020) 1.7% → (2021) 7.4%
- 교역현황 : (2020) 363억불 → (2021) 421억불(16%)
 - ※ 2021년 수출입 : 수출 166억불(10%), 수입 255억불(20.4%), 무역수지 △89억불
 - ※ 교역순위(억불): ①러시아(75.2), ②중국(74.4), ③카자흐(39.1), ④터키(33.9), ⑤한국(18.9)
- 경상수지 : (2020) △31.4억불 → (2021) △46억불
- 외국투자
 - 외국인직접투자(FDI): (2020) 28.7억불→ (2021) 28.4억불(30.1조숨)
 - 외국투자기업 수 : 총 13,289개 (2022.1.1. 기준)
 - ※ 국별순위: ①러시아 2,309개, ②중국 1,927개, ③터키 1,882개, ④카자흐 1,067개, ⑤한국 896개
- 투자환경
 - 국가신용등급(S&P) : BB-(장기)/B(단기)
 - 기업환경평가(세계은행, Doing Business) : 69위/190(2020)
 - 경제자유지수(해리티지재단, Index of Economic Freedom) : 108위/186(2021)
 -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140위/180(2021)

■ 지역경제

연번	지역명	면적(천km ²)	인구(천명)	지역총생산(2021)	
				조숨	비중(%)
1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166.6	1,948.5	26.3	3.6
2	안디잔주	4.3	3,253.5	43.8	6.0
3	부하라주	40.2	1,976.8	38.7	5.3
4	지작주	21.2	1,443.4	23.3	3.2
5	카슈카다리아주	28.6	3,408.3	43.8	6.0
6	나보이주	111.1	1,033.9	59.4	8.1
7	나망간주	7.4	2,931.1	34.5	4.7
8	사마르칸트주	16.8	4,031.3	53.7	7.3
9	수르한다리아주	20.1	2,743.2	30.1	4.1
10	시르다리아주	4.3	878.6	15.6	2.1
11	타슈켄트주	15.2	2,941.6	82.1	11.2
12	페르가나주	6.8	3,896.4	47.3	6.4
13	호레즘주	6.1	1,924.2	26.9	3.7
14	타슈켄트시	0.3	2,860.5	121.8	16.6